꿈바온 매일묵상 (매일말씀) | 기존 4부 구성 회당 1쪽 요약 합본

성경 한 바퀴 — 5년, 함께 걸어볼까요?

2026년 11월호 합본 (10.29 목 ~ 11.30 월 · 제1~28회 수록 · 총 29쪽)

■ **수록 범위 (총 28회 = 28장)**

- **제1부 · 룻기 1~4장 완독** (제1~4회 : 빈손에서 다윗의 족보까지)
- **제2부 · 에스더 1~10장 완독** (제5~14회 :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시는 역사)
- **제3부 · 사무엘상 1~14장 풀어읽기** (제15~28회 : 한나의 기도에서 요나단의 믿음까지)

■ **자료 형식 및 판본 안내**

- 본 PDF는 웹 서가의 『6쪽 와이드 자료집』과 별도로 제작된 **기존 4부 구성 (오늘 걷는 길 · 풀어읽기 · 한 단어에 머물기 · 들고 나가는 말씀) 회당 1쪽 요약 합본**입니다.
- **판본:** 2026년 10월 28일 원어(히브리어) 표기 및 범위 정정 개정판

해설과 풀어읽기는 성경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꿈바온이 작성한 독립 해설문이며, 직접 인용한 핵심 구절은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꿈바온 디지털 도서관 (꿈디도) · 성경 한 바퀴 아카이브

제01회 | 2026-10-29 (목) | 제1부 · 룻기 (1장 = 1회, 전 4장 완독)

흉년으로 떠난 길, 보리 추수로 돌아오다 (룻기 1:1 – 22)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주전 1150~1100년경) · 유다 베들레헴과 요단 동편 모압 들판 | **등장인물:**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룐, 오르바와 룻

• **길 안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유다 땅 베들레헴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본래 빵집이라는 뜻이지요. 그 이름과 달리 마을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룐을 데리고 사해 동쪽 모압 들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잠시 기근만 피하려던 걸음이었건만 그들은 모압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고, 얼마 뒤 남편 엘리멜렉이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홀로 남은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십 년쯤을 더 살았으나, 안타깝게도 두 아들마저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가 모압 들판에 남겨졌을 때, 고향 유다 땅에서 한 줄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돌보셔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지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국경 길목에 이르자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앞날이 안쓰러워 각자 친정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히 쉬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며 입을 맞춥니다. 두 며느리가 소리 내어 울며 어머니의 백성에게 함께 가겠다고 말하지만, 나오미는 내게서 더 이상 아들이 태어날 리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거듭 만류했지요.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과 자기 신들에게로 발걸음을 돌렸으나, 룻은 끝내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단단히 붙좇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고백했지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셔도 좋다는 굳은 맹세 앞에 나오미도 더는 말리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읍이 술렁이며 이이가 나오미가 아니냐고 묻지요.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쓰디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러 달라고 탄식합니다. 풍족하게 나갔던 나를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눈물이었지요. 그렇게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는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파카드 (פָּקַד · paqad) —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고 할 때 쓰인 동사입니다. 멀리서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 형편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행동을 뜻하지요. 또한 14절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따랐다고 할 때 쓰인 다바크(דָּבַק · dabaq)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할 때 쓰인 단어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밀착하는 언약적 충성을 보여 줍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절망에 잠긴 나오미를 다시 고향으로 일으켜 세운 첫 동력은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먼저 베들레헴 들판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찾아오심(파카드)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곁에 모압 여인 룻을 붙여 주셨고 고향 들판에는 보리 추수의 새 계절을 열어 두고 계셨지요.

• 오늘의 질문: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는 그 길목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남겨 두신 '룻' 과 '보리 추수의 징조' 는 무엇입니까?

• 기도로 머물기: 빈손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쓴 탄식까지도 품어 주시는 주님, 끝이라고 여긴 자리에서 이미 보리 추수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제02회 | 2026-10-30 (금) | 제1부 · 룻기 (1장 = 1회, 전 4장 완독)

우연히 들어간 밭에 숨겨진 하나님의 날개 (룻기 2:1 – 23)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 시대 (주전 1150~1100년경) · 봄철 보리 추수기 베들레헴 성문 밖 추수 밭 | **등장인물:** 룻, 보아스(엘리멜렉의 친족), 나오미, 추수하는 일꾼들

• **길 안내:** 생계를 위해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압 여인 룻을 따뜻하게 보호하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녀에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사람 가운데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족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두 과부가 먼저 그 부유한 친족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는 쉽지 않았지요. 어느 날 아침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으로 나가 누군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내 딸아 다녀오라고 허락하자, 룻은 들판으로 나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이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뒤 베들레헴 성읍에서 밭으로 나온 보아스가 추수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하자,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고 화답합니다. 밭을 둘러보던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젊은 여인을 발견하고 추수꾼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저 소녀가 누구의 집 사람이냐고 묻지요. 사환은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이방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서서 이삭을 줍고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과 함께 머물며 이삭을 주우라고 따뜻하게 권합니다.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으니,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 사환들이 길어 놓은 그릇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배려하지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토록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느냐고 묻자, 보아스는 네가 남편을 잃은 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사연을 다 들었다고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하지요.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을 식탁 곁으로 불러 초에 찍은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해 줍니다. 나아가 일꾼들에게는 곡식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흘려 두어 그녀가 부끄러움 없이 줍게 하고 절대 꾸짖지 말라고 몰래 명령했지요. 저녁까지 이삭을 주워 떨어 보니 보리가 한 에바나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보리를 안고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그치지 않으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보아스가 바로 우리 집안의 기업 무를 친족임을 알려 주지요.

【3. 한 단어에 머물기】

• 카나프 (כָּנָף · kanaph) — 12절에서 '여호와의 날개'를 뜻하는 명사로, 새의 날개와 사람의 겉옷 자락 끝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어미 새가 폭풍 속에서 새끼를 품어 주듯 하나님이 나그네 된 룻을 품으신다는 뜻이며, 3장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덮어 달라고 요청하는 '옷자락(카나프)'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3절의 '우연히'에 쓰인 미크레(מִקְרֶה · miqreh)는 사람의 눈에는 계획 없는 우연처럼 보이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문학적으로 강조합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밭 모퉁이의 이삭을 남겨 두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들판에서 이방 과부가 그 권리를 누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에 머물지 않고,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 단에서 이삭을 뽑아 흘려 놓게 하여 룻의 자존심까지 세심하게 지켜 주었지요. 무심코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일상의 걸음 속에 당신의 따뜻한 날개를 숨겨 두고 계십니다.

• 오늘의 질문: 오늘 내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온 이웃의 자존심을 지켜 주며 내가 소리 없이 흘려 놓을 수 있는 배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 기도로 머물기: 우연처럼 보이는 발걸음마다 섭리의 날개를 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위로를 얻고 이웃에게도 넉넉한 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03회 | 2026-10-31 (토) | 제1부 · 룻기 (1장 = 1회, 전 4장 완독)

타작마당의 밤, 율법이 가리키던 사랑(헤세드)을 품다 (룻기 3:1 – 18)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 시대 (주전 1150~1100년경) ·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는 늦봄 밤, 베들레헴 타작마당 | **등장인물:** 나오미, 룻, 보아스

• **길 안내:** 추수가 끝날 무렵 나오미는 룻의 안식을 구하기 위해 기업 무를 자인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그녀를 보냅니다. 한밤중 발치에서 깨어난 보아스는 옷자락을 펴 덮어 달라는 룻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안겨 줍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모두 마무리될 무렵,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 조용히 입을 엽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다정한 말이었지요. 나오미는 룻이 그동안 함께 일했던 소녀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임을 일깨우며,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러 타작할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그러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단정히 입은 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눕는 곳을 잘 보아 두었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면 그가 할 일을 알게 해 줄 것이라고 일러 주지요.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순종하며 저녁녘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보아스는 추수를 마친 기쁨 속에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 곡식 단 더미 끝에 가서 누웠습니다. 룻은 가만히 다가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조용히 누웠지요. 밤중쯤 되어 보아스가 한기에 놀라 몸을 돌이켜 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가 누구냐고 묻는 물음에 룻은 자신이 여종 룻임을 밝히며,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무를 자이시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 달라고 정중히 청합니다.

보아스는 어둠 속에서 찾아온 이방 여인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며 깊이 감동하지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죽은 남편의 가문과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성읍의 모든 백성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친족이 한 사람 더 있다는 법적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지요. 아침에 그 친족이 책임을 지겠다면 좋거니와, 만일 그가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반드시 네 기업을 무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보아스는 룻의 명예를 지켜 조용히 돌려보내면서 겉옷에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했고, 나오미는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며 평안히 아침을 맞이합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고엘 (גֹּאֵל · go'el) — 9절과 12절의 '기업 무를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본래 값을 치르고 잃어버린 가족의 땅이나 권리를 되찾아 주는 가까운 친족(구속자)을 가리킵니다. 또한 10절의 헤세드(חֶסֶד · chesed, 인애)는 약자를 돌보고 가족 공동체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신실한 언약의 사랑을 뜻합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지난 2장에서 보아스는 룻을 향해 여호와의 날개(카나프)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지요. 그런데 3장 타작마당에서 룻은 그 동일한 단어 카나프(옷자락)를 사용하여,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날개가 지금 당신의 옷자락을 통해 우리 가정을 덮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레위기 25장의 기업 무를 자 규례와 신명기 25장의 수혼 제도라는 율법의 틀 안에서, 율법이 본래 가리키던 사랑(헤세드)의 마음을 기꺼이 실천하여 과부의 삶을 품어 안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며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안겨 준 손길은, 1장에서 비어 돌아왔다고 울던 여인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지요.

• 오늘의 질문: 말로만 누군가의 평안을 빌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직접 손해를 감수하며 펴 주어야 할 사랑의 옷자락은 어디입니까?

• 기도로 머물기: 사랑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성취하심을 믿고 조급함 없이 기다리며 이웃의 삶을 따뜻하게 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04회 | 2026-11-02 (월) | 제1부 · 룻기 (1장 = 1회, 전 4장 완독)

성문에서 건넨 신발 한 짝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름 (룻기 4:1 – 22)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 시대 (주전 1150~1100년경) · 베들레헴 성문 앞 법정 광장과 보아스의 집 | **등장인물:** 보아스, 더 가까운 친족(아무개), 성읍 장로 열 명, 나오미, 룻, 오벳

• **길 안내:**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에서 장로 열 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봐 권리를 포기한 친족 대신 엘리멜렉의 기업과 룻을 정식으로 무릅니다. 룻이 아들 오벳을 낳자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아침이 밝자 보아스는 곧장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 안쪽 광장은 성읍 장로들이 모여 재판과 계약을 확정하는 공적인 법정이었지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친족'이 성문을 지나가자, 보아스는 그를 아무개여 하고 불러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증인으로 앉힌 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니 첫째 권리가 있는 당신이 무르려거든 무르고, 무르지 않으려거든 내게 알려 달라고 공식 제안하지요.

땅만 사들이면 자기 재산이 늘어날 줄 생각한 그 친족은 처음에 선뜻 내가 무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 위에 그의 이름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중대한 조건을 덧붙이지요. 다시 말해 돈만 내고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땅이 다시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족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며, 내가 무를 권리를 네가 가져가라고 물러서고 말았지요.

옛적 이스라엘에서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계약을 확정할 때 자기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법적 증명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친족이 자기 신발을 벗어 건네주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오늘 엘리멜렉과 기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과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우게 되었노라고 선언하지요. 성문에 모인 백성과 장로들은 우리가 증인이 되노라며 라헬과 레아와 다말의 집처럼 네 집이 베들레헴에서 흥왕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자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고,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 여호와를 찬송했지요.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이 아이가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고 기뻐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할 때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어 보아스에서 오벳과 이새를 거쳐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완성됩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메쉬브 네페쉬 (מְשִׁיב נֶפֶשׁ · meshib nephesh) — 15절의 '생명의 회복자'로, 되돌리다라는 뜻의 동사 어근 슈브(שׁוּב)의 사역형 분사와 영혼·생명을 뜻하는 네페쉬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할 때 쓰인 동사(요쇼베브)와 같은 어근(슈브)에서 나온 말로, 메마르고 지친 숨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 줍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성문 재판에서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까 봐 신발을 벗어 건네주며 권리를 포기한 친족은 자기 이름과 소유를 지키려 했으나, 정작 성경 본문에는 '아무개(플로니 알모니)'로만 남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죽은 형제의 가문과 이방 과부를 책임진 보아스의 이름은 다윗 왕과 메시아의 계보에 영원히 새겨졌지요. 또한 4장 결말에서 동네 여인들의 축복이 룻을 넘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향하고 나오미가 아기 오벳을 품에 안는 장면은, 1장의 텅 빈 통곡을 완벽하게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 줍니다.

• 오늘의 질문: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봐 계산하며 물러서는 '아무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며 생명을 살리는 '보아스'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상한 영혼의 숨을 다시 돌이키시는 생명의 회복자 하나님, 눈앞의 손익을 계산하느라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05회 | 2026-11-03 (화) | 제2부 · 에스더 (1장 = 1회, 전 10장 완독)

수산 궁의 백팔십 일 잔치와 왕의 뜻대로 되지 않는 빈자리 (에스더 1:1 – 22)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바사(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제3년 (주전 483년경) · 겨울 수도 수산(Susa) 왕궁 |
등장인물: 아하수에로 왕, 와스디 왕후, 일곱 내시, 일곱 지방관(므무간 등)

• **길 안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궁에서 180일 동안 제국의 부요함과 위엄을 과시하는 잔치를 엽니다. 그러나 잔치의 마지막 날 왕후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하면서, 온 제국을 호령하던 왕의 권위가 흔들리고 왕후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스(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던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겨울 수도 수산 궁에서 왕위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제삼 년이 되던 해에, 왕은 자기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 앞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지요. 무려 백팔십 일 동안이나 자기 나라의 부요한 영광과 위엄의 화려함을 온 신하들에게 보여 줍니다. 그 날수가 다 차자 왕은 수산 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귀천을 막론하고 왕궁 후원 뜰에서 칠 일 동안 또다시 잔치를 열었지요.

후원 뜰의 장식은 눈이 부실 만큼 화려했습니다. 흰색과 녹색과 청색 휘장이 자색 가는 베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여 있었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이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을 깐 바닥 위에 놓여 있었지요. 마시는 술잔도 다 금잔이었는데 잔마다 모양이 각기 달랐으며, 왕의 풍부한 손길대로 어주가 한없이 부어졌습니다. 마시는 법도 있어 억지로 권하지 않고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시게 했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었지요.

잔치의 마지막 날인 제칠 일에 왕이 주흥이 올라 마음이 기뻐지자, 어전에서 섬기는 일곱 내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녀의 아리따운 모습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여 주라는 어명이었지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내시들이 왕의 명령을 전했으나 왕후 와스디가 나아오기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 왕은 심히 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타올랐지요.

왕은 사례를 아는 현자들과 왕의 면전에 가까이 앉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에게 법대로 하면 왕후 와스디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므무간이 나서서,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모든 지방관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이라 아뢰지요. 이 소문이 퍼지면 전국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터이니, 변개할 수 없는 바사와 메대의 법에 기록하여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자고 건의합니다. 이 말을 좋게 여긴 왕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내려, 모든 남편이 자기 집에서 주관자가 되게 하라고 온 제국에 급히 공포하였지요.

【3. 한 단어에 머물기】

• 다트 (דָּת · dath) — 8절, 13절, 15절, 19절에 거듭 등장하는 '법, 법령, 칙령'이라는 뜻의 페르시아어 차용 히브리어입니다. 바사 제국은 한 번 내린 왕의 법(다트)을 결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자랑했으나, 1장은 정작 그 절대 군주가 자기 아내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해 당황하며 온 제국에 어설픈 법령을 내리는 모순을 날카롭게 비추어 줍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장은 백이십칠 개 지방을 호령하며 백팔십 일 동안 부귀영화를 과시하던 세계 최강의 황제조차 자기 잔치의 결말을 뜻대로 이끌지 못함을 유머러스하게 보여 주지요.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시며, 와스디의 거절로 인해 수산 궁에 생긴 그 '빈자리'는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무대였습니다.

• 오늘의 질문: 세상의 화려한 위세나 권력 앞에서 주눅 들기보다, 그 너머에서 역사를 조용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온 세상의 왕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크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빈자리마저 섭리로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06회 | 2026-11-04 (수) | 제2부 · 에스더 (1장 = 1회, 전 10장 완독)

이름을 숨긴 고아 소녀와 성문 앞 모르드개의 기록된 충성 (에스더 2:1 – 23)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아하수에로 왕 제7년 (주전 479년경) · 수산 왕궁 후궁 처소와 대궐 문 | **등장인물:** 아하수에로 왕, 모르드개(베냐민 자손), 에스더(하닷사), 헤개, 빅단과 데레스

• **길 안내:**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라비 모르드개 밑에서 자란 유다 소녀 하닷사(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은 채 왕궁에 들어가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한편 대궐 문에 앉아 있던 모르드개는 두 내시의 왕 암살 음모를 적발하여 왕의 목숨을 구하지만, 보상 없이 궁중 일기에만 기록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그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자, 왕은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 그리고 그녀에 대해 내렸던 조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시종들이 아리따운 처녀들을 왕을 위해 구하자고 아뢰지요. 전국 모든 지방에 관리를 두어 처녀들을 도성 수산의 후궁으로 불러 모아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손에 맡기고,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었다가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자고 건의하니 왕이 그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무렵 도성 수산에 모르드개라는 유다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베냐민 자손으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었는데,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를 사로잡아 올 때 함께 끌려왔던 포로민의 후손이었습니다. 모르드개에게는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누이가 있었지요. 그 소녀는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 일찍 고아가 되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는데, 모르드개가 자기 친딸처럼 거두어 정성껏 길렀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어 수많은 처녀들이 수산으로 불려 모일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 헤개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헤개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할 음식품을 속히 주며 왕궁에서 가장 좋은 처소로 옮겨 일곱 궁녀를 붙여 주지요. 이때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모르드개는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거닐며 에스더의 안부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폈습니다.

처녀마다 육 개월은 몰약 기름을 쓰고 육 개월은 향품과 정결케 하는 물품을 써서 열두 달의 규례를 마친 뒤에야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왔는데, 에스더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헤개가 정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구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얻었고, 왕의 제칠 년 열째 달에 나아가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습니다. 얼마 뒤 대궐 문에 앉아 있던 모르드개는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아채어 에스더를 통해 왕께 알렸고,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나자 두 내시는 나무에 달리고 그 일은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지요.

【3. 한 단어에 머물기】

• 하닷사 (הֲדַסָּה · Hadassah) — 7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히브리 본명으로 '화석류나무(은화수나무, Myrtle)'라는 뜻입니다. 사막의 메마른 기후에서도 푸른 잎과 은은한 향기를 잃지 않는 나무로, 이사야 55장 13절과 스가랴 1장 8절에서 황폐한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페르시아 이름인 에스더(별) 뒤에 그녀의 본래 정체인 하닷사가 숨 쉬고 있었지요.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1장의 잔치(제3년)와 2장의 왕후 간택(제7년) 사이에는 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역사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큰 패배를 겪고 돌아온 시기였지요. 그 거대한 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아 소녀 에스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를 입어 왕후가 됩니다. 특히 2장 마지막에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그날 당장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궁중 일기책에만 한 줄로 남는 장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조급한 계산보다 훨씬 더 멀리 앞을 내다보고 계심을 보여 줍니다.

• 오늘의 질문: 나의 정직한 수고가 당장 사람들에게 보상받지 못하고 '일기책 한 줄'로만 묻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잊힌 것 같은 작은 충성까지도 하늘의 기념책에 빠짐없이 기록하시는 주님,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주님 앞에서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제07회 | 2026-11-05 (목) | 제2부 · 에스더 (1장 = 1회, 전 10장 완독)

하만의 인장반지와 무르익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릎 (에스더 3:1 – 15)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주전 474년경) · 수산 왕궁과 대궐 문 | **등장인물:** 아각 사람 하만, 모르드개, 아하수에로 왕, 왕의 서기관들과 역졸들

• **길 안내:**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높이 세우자 대궐 문 신하들이 다 절하지만 모르드개는 절하지 않습니다. 분노한 하만은 부르(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십삼 일에 제국 내 모든 유다인을 진멸할 조서를 꾸미고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어 온 제국에 발송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그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보다 윗자리에 두었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건만,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지요. 대궐 문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며 날마다 권했으나, 모르드개는 듣지 않고 자기가 유다 사람임을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신하들은 모르드개의 말이 그대로 서는지 보려고 마침내 하만에게 이 사실을 고하지요.

하만은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직접 보고 분노가 가득 차오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이미 알렸으므로, 하만은 모르드개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겨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 전체를 다 멸절하고자 꾀하지요. 아하수에로 왕 제십이 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 부르, 곧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 일로 뽑혔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교묘한 말로 유다 민족을 모함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왕이 그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는 참소였지요. 왕이 좋게 여기시면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게 해 달라며, 자기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민족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은 채 자기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에게 주며,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허락해 버렸지요.

유월절을 하루 앞둔 첫째 달 십삼 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대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작성하고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 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와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며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가 역졸들의 손에 들려 제국 모든 지방으로 달려 나갔지요.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공포되니, 왕과 하만은 앉아서 술을 마시되 수산성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푸르 (פּוּר · pur) — 7절의 '부르 곧 제비'라는 뜻으로 아카드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만은 첫째 달에 미신적인 주사위(부르)를 던져 학살 날짜를 잡으려 했으나, 제비가 열한 달 뒤인 열두째 달로 뽑힘으로써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구원의 길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본문은 모르드개를 소개할 때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2:5)이라 적고,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3:1)이라 기록합니다. 또한 모르드개가 왜 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신하들에게 '자기가 유다 사람임을 고하였다'(4절)는 사실만을 간결하게 밝혀 주지요. 구약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읽는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기스의 아들 사울 왕과 아말렉 왕 아각의 오래된 갈등(사무엘상 15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모든 일의 결말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잠 16:33).

• 오늘의 질문: 세상의 모두가 당연하게 무릎 꿇고 타협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지켜야 할 양심의 선은 무엇입니까?

• 기도로 머물기: 사람이 던진 주사위조차 구원의 시간표로 바꾸시는 하나님, 세상의 거센 압력 앞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제08회 | 2026-11-06 (금) | 제2부 · 에스더 (1장 = 1회, 전 10장 완독)

베옷 입은 성문과 이때를 향한 에스더의 삼 일 금식 (에스더 4:1 – 17)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중순 (유월절 기간) · 수산 대궐 문 앞 광장과 왕후의 내전 | **등장인물:** 모르드개, 에스더, 하닥(왕의 내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 **길 안내:** 멸절 조서를 본 모르드개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대궐 문 앞에서 통곡합니다.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는 법 앞에서 두려워하던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모르드개의 말을 듣고 삼 일 금식 후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례가 있었으므로 문밖에 머물렀지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과 재를 자리 삼아 누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나아와 이 사실을 전하자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모르드개에게 새 의복을 보내어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전에서 자기 시중을 들게 한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고 명하지요.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나가니, 모르드개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다 설명합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건네어 에스더에게 보여 주고 알게 하며, 그녀가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당부하지요.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에스더는 솔직한 두려움이 담긴 답장을 보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인데 이는 모든 신하와 백성이 다 아는 바라는 것이었지요. 더구나 자기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나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다시 엄중한 답장을 보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는 경고였지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물음 앞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마음을 정하고 회답을 보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삼 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뒤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터이니 죽으면 죽겠다는 결단이었지요. 모르드개는 즉시 가서 에스더가 당부한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레바흐 웨하찰라 (רֶוַח וְהַצָּלָה · revach we-hatzalah) — 14절의 '놓임과 구원' 입니다. 레바흐는 숨이 막힐 듯 좁은 공간이 넓어져 숨통이 트이는 해방을 뜻하고, 하찰라는 위험에서 건져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불리지 않아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는 고백 속에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모르드개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에스더 역시 처음부터 두려움을 모르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찾지 않은 지 삼십 일이나 지났고 부름 없이 나아가면 즉시 처형당하는 엄혹한 법 앞에서 그녀도 떨었지요. 그러나 나 혼자 왕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으려 하기보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임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유월절 하루 전날(니산월 13일)에 죽음의 조서를 반포했을 때, 수산 성의 유다인들은 유월절 잔치 대신 삼 일 동안 생명을 건 금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 오늘의 질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역할이 '바로 이때를 위함' 이라는 부르심으로 들려오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 기도로 머물기: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때를 따라 부르시는 주님, 나 혼자 안전하려는 침묵을 깨뜨리고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제09회 | 2026-11-07 (토) | 제2부 · 에스더 (1장 = 1회, 전 10장 완독)

내밀어진 금규(金圭)와 하만이 세운 오십 규빗 나무 (에스더 5:1 – 14)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십육 일경 (금식 제3일) · 수산 왕궁 어전 안뜰과 하만의 집 | **등장인물:**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하만, 모르드개, 세레스(하만의 아내)

• **길 안내:** 금식 제삼 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서자, 왕이 그녀를 사랑스럽게 보며 금규를 내밉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로 초청한 뒤 간구를 다음 날 잔치로 미루고, 하만은 대궐 문에서 일어나지 않는 모르드개 때문에 분노하여 오십 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웁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금식을 시작한 지 제삼 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왕이 어전에서 문 맞은편 왕좌에 앉아 있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모습을 바라보니, 왕의 눈에 그녀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지요. 왕이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녀를 향해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금규 끝을 만집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고 다정하게 묻지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고,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청합니다.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명령하자,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로 나아갔지요. 술을 마실 때에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내일 또 오시기를 청하며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아뢰겠다고 하루를 더 미루지요.

그날 하만은 마음이 기뻐 즐거워하며 왕궁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궐 문에 있는 모르드개가 자기를 보고도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모습을 보자, 하만은 모르드개에 대하여 분노가 가득 치밀어 오르지요. 그 자리에서는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모았습니다.

하만은 그들 앞에서 자기의 큰 영광과 부요함,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대신과 신하들보다 높여 주신 일을 장황하게 자랑합니다. 더구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고 우쭐대지요. 그러면서도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를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조금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한 뒤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라고 부추겼고,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겨 즉시 오십 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샤르비트 하자하브 (שַׁרְבִּיט הַזָּהָב · sharbit ha-zahav) — 2절의 '금규(황금 홀)'로, 고대 바사 왕이 가진 통치권과 생사여탈권을 상징하는 황금 지팡이입니다. 부름 없이 나아온 자에게 왕이 이 금규를 내미는 것은 법적인 사형 선고를 거두고 은총으로 맞아들인다는 표지였지요. 반면 14절에서 하만이 세운 에츠(עֵץ · etz, 나무 · 장대)는 오십 규빗(약 23미터)에 달하는 교만의 상징물이 됩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금식을 마친 에스더는 왕이 금규를 내밀며 소원을 물었을 때 성급히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왕과 하만 단 두 사람만 부르는 잔치를 두 차례 마련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그 첫째 날 잔치와 둘째 날 잔치 사이의 '하룻밤'이야말로 하나님이 왕의 잠을 깨우시고 궁중 일기책을 펼치실 결정적인 시간이었지요. 반면 온 제국의 부귀와 총애를 다 누리고도 모르드개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탄식하는 하만의 모습은,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 결핍에 매여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 오늘의 질문: 이미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통과한 우리에게 성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와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제10회 | 2026-11-09 (월) | 제2부 · 에스더 (1장 = 1회, 전 10장 완독)

왕이 잠들지 못한 그 밤, 펼쳐진 궁중 일기책 한 줄 (에스더 6:1 – 14)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십육 일 밤~십칠 일 아침 · 수산 왕궁 침실과 성읍 거리 | **등장인물:** 아하수에로 왕, 시종들, 하만, 모르드개, 세레스와 지혜자들

• **길 안내:**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하니, 오 년 전 모르드개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한 기록이 읽힙니다. 새벽 일찍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려고 들어온 하만은 자기가 영광을 받을 줄 착각하고 최고의 의전을 제안했다가 자기 손으로 모르드개를 말에 태우고 거리에서 외치게 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하였더니, 그 속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이 시종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고 묻자, 시종들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대답하지요.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고 묻는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시종들이 하만이 뜰에 서 있다고 아뢰자 왕이 들어오게 하라 명하지요.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묻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합니다. 하만은 마음속으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겠는가 착각하여, 평소 자기가 꿈꾸던 최고의 영예를 거침없이 아룁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대신의 손에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게 해 달라고 제안하지요.

그 순간 왕이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행하라는 어명이었지요. 하만은 입도 떼지 못한 채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고 다녔습니다.

행진이 끝난 뒤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고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자, 그의 지혜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대답하지요.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 예고합니다. 아직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로 급히 나아갔지요.

【3. 한 단어에 머물기】

• 세페르 하지크로노트 (סֵפֶר הַזִּכְרֹנוֹת · sepher ha-zikhronoth) — 1절의 '역대 일기'로, 직역하면 '기억들의 책(기념책)'이라는 뜻입니다. 1절 첫머리인 네데다 슈나트 하멜레크(נְדֻדָה שְׁנַת הַמֶּלֶךְ, 왕의 잠이 달아났다)와 맞물려, 사람의 눈에는 잊힌 듯했던 의인의 충성이 가장 정확한 밤에 기억의 책 속에서 다시 깨어남을 보여 줍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에스더서 전체의 물줄기가 뒤집히는 전환점은 거창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잠 못 이루는 밤과 서고에서 꺼내 온 일기책 한 권이었습니다. 오 년 전(2:23)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했을 때 왜 그날 당장 상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이 새벽에 비로소 밝혀지지요. 만약 오 년 전에 상을 받았더라면 이 날 새벽 모르드개는 하만의 나무에 달렸을 것입니다. 또한 온 성읍 거리에서 왕복을 입고 높임을 받은 뒤에도 들뜨지 않고 묵묵히 대궐 문 자기 자리로 돌아온(12절) 모르드개의 모습은, 아직 민족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함을 보여 줍니다.

• 오늘의 질문: 내 기도와 수고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정확한 밤에 기념책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까?

• 기도로 머물기: 우리가 눈물 흘리는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제11회 | 2026-11-10 (화) | 제2부 · 에스더 (1장 = 1회, 전 10장 완독)

두 번째 잔치 식탁에서 드러난 진실과 뒤집힌 운명 (에스더 7:1 – 10)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십칠 일 낮 · 수산 왕궁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처소 | **등장인물:**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하만, 하르보나(왕을 모시는 내시)

• **길 안내:**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자기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구하며 자신들이 죽임과 진멸에 팔렸음을 고백합니다. 왕이 그 악한 자가 누구냐고 묻자 에스더는 대적 하만을 지목하고,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세워 둔 오십 규빗 나무에 달립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들어가서 술을 마실 때였습니다. 제이 일 잔치 자리에서도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고 거듭 묻지요. 그제야 왕후 에스더가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돌려달라고 간청하지요.

에스더는 이어서 자신과 자기 민족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호소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으니,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것이나 지금은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아룁니다. 그동안 숨겨 왔던 자신이 바로 진멸 대상이 된 유다 민족임을 밝히면서, 하만이 조서에 적었던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세 단어를 그대로 들어 고발한 것이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놀라며 왕후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다그쳐 묻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앞자리에 앉은 사람을 가리키며,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라고 분명히 밝히지요. 이 한마디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혼비백산하여 두려워 떨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왕은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걸어 나갑니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살길을 구하려고 일어나 왕후 에스더 앞에 서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왕이 내가 궁중에 있는데 저가 왕후를 강제로 범하고자 하느냐고 소리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워 두었다고 아뢰지요.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명령하자,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바로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았고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차르 웨오예브 (צַר וְאוֹיֵב · tzar we-oyev) — 6절에서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켜 부른 '대적과 원수' 입니다. 차르는 사람을 사방에서 죄어 숨 막히게 하는 압제자를 뜻하고, 오예브는 적대감을 품은 원수를 뜻합니다. 유다 백성을 왕에게 무익한 자들이라 참소했던 하만 자신이야말로 왕후와 제국을 해치는 진정한 대적임이 식탁 위에서 드러났지요.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에스더가 왕에게 탄원할 때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잠잠하였을 것이나 죽임과 도륙과 진멸에 팔렸기에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할 수 없다고 말한 대목(4절)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하만이 약속한 은 일만 달란트보다 왕후와 수많은 백성을 잃는 것이 왕에게 훨씬 큰 손실임을 일깨우며, 조서에 도장을 찍었던 왕 자신의 허물을 건드리지 않고 하만의 속임수만을 정확히 분리해 낸 것이지요. 의인을 해치려고 세운 오십 규빗 나무에 악인이 스스로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두 번째 잔치 식탁에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 오늘의 질문: 악인이 높은 장대를 세우며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공의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식탁을 신뢰합니까?

• 기도로 머물기: 금식하며 준비한 기도의 자리를 구원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거짓과 폭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끝내 진실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아멘.

제12회 | 2026-11-11 (수) | 제2부 · 에스더 (1장 = 1회, 전 10장 완독)

다시 찍힌 왕의 인장반지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에스더 8:1–17)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셋째 달 이십삼 일 · 수산 왕궁 어전과 제국 127개 지방 역참 길 | **등장인물:** 에스더, 모르드개, 아하수에로 왕, 왕의 서기관들과 역졸들

• **길 안내:** 하만의 집과 왕의 인장반지가 모르드개에게 넘어가지만, 이미 반포된 바사 왕의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자, 왕은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새 조서를 허락하고 온 제국 유다인들에게 빛과 기쁨이 임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도로 찾은 인장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지요. 그러나 하만은 죽었어도 그가 두 달 전에 온 제국으로 발송해 놓은 유다인 멸절 조서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 채 살아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간절히 아뢰지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차마 볼 수 있겠느냐는 눈물의 호소였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말하기를,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으라고 허락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누구든 철회할 수 없었기에, 이전 조서에 맞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왕의 조서를 내려보내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지요.

그때 시완월 곧 셋째 달 이십삼 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인도에서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 유다인과 대신들과 지방관들에게 조서를 씁니다. 왕이 각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이나 군대가 유다인과 어린이와 여인들을 치려 하거든 그들을 물리치되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 일 하루 동안에 행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의 어명이 심히 급하므로 역졸들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었지요.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각 지방 유다인들에게는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쳐났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오라 웨심하 (אוֹרָה וְשִׂמְחָה · orah we-simchah) — 16절에서 유다인들에게 임한 네 가지 복(빛, 즐거움, 기쁨, 존귀함) 가운데 첫 번째인 '빛과 즐거움' 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베옷을 입고 울던 백성들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왕의 새 조서가 도착했을 때 비친 구원의 새벽빛을 뜻합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하만이 처형되고 모르드개가 총리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이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이야기는 7장에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민족의 구원을 호소했지요. 3장에서는 하만의 인장반지로 찍힌 죽음의 조서가 역졸들의 손을 통해 온 제국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8장에서는 모르드개가 낀 왕의 인장반지로 찍힌 생명의 방어 조서가 왕실의 준마를 타고 백이십칠 개 지방으로 달려가 슬픔을 빛과 기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바꿀 수 없어 보이는 세상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 오늘의 질문: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주하지 않고, 아직 눈물 속에 있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빛과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13회 | 2026-11-12 (목) | 제2부 · 에스더 (1장 = 1회, 전 10장 완독)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 부림절의 역전과 구제의 식탁 (에스더 9:1–32)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열두째 달(아달월) 십삼 일~십오 일 · 바사 제국 전역과 도성 수산 | **등장인물:** 모르드개, 에스더, 수산 성과 바사 제국 각 지방의 유다인들

• **길 안내:** 대적들이 유다인을 지배하려던 아달월 십삼 일이 도리어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이기는 역전의 날이 됩니다. 이때 유다인들은 대적의 재산에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슬픔이 기쁨이 된 날을 기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부림절을 세웁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아달월 곧 열두째 달 십삼 일, 왕의 어명과 조서가 시행될 날이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던 바로 그날이었으나, 유다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도리어 주관하게 되는 정반대의 역전이 일어났지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치려 할 때에,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아 설 자가 없었습니다.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해지면서 그의 명성이 각 지방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유다인들이 칼로 대적을 쳐서 도성 수산에서만 오백 명을 죽였고, 유다인의 대적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날 도성 수산에서 죽임당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유다인이 수산에서 이미 오백 명과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고 묻지요. 에스더가 수산의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 달라고 청하니 왕이 그대로 허락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아달월 십사 일에도 모여 또 삼백 명을 물리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도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들을 해하려던 대적 칠만 오천 명을 쳐서 물리치되 그들의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유다인들은 십삼 일에 일을 마치고 십사 일에 쉬며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고, 수산의 유다인들은 십삼 일과 십사 일에 모였다가 십오 일에 쉬며 기쁨의 날로 삼았지요.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각 지방의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십사 일과 십오 일을 지키게 합니다.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명하였지요. 부르 곧 제비를 뽑았으므로 이 두 날을 부림이라 불렀으며,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이 부림절 규례를 굳게 확정하였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네하포크 후 (נֶהְפּוֹךְ הוּא · nahaphokh hu) — 1절의 핵심 어구로 '그 일이 정반대로 뒤집혔다(도리어 역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22절에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고 할 때 같은 어근(하파크, 뒤집다 · 변하다)이 쓰여, 부림절의 중심이 하나님의 대역전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9장은 제국 전역에서 벌어진 치열한 무력 충돌과 수많은 인명이 쓰러진 무거운 현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 엄혹한 전투의 기록 속에서 10절, 15절, 16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들의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내용이 특히 주목을 끕니다. 왕의 새 조서(8:11)에는 대적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허락이 적혀 있었으나, 유다인들이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은 모습은 옛적 사울 왕이 아말렉의 전리품을 탐했던 역사(사무엘상 15장)를 떠올리게 하며, 이 싸움이 재물을 노린 약탈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음을 보여 주지요. 그리고 치열한 생존의 날이 지나간 뒤 세워진 부림절 잔치는, 1장에서 왕이 권력을 과시하려 열었던 잔치와 달리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나눔의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질문: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자리에서 사사로운 이익에 욕심내지 않고, 가난하고 지친 이웃과 기쁨의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애통을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사사로운 욕심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의 빈손을 채우는 구제와 나눔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14회 | 2026-11-13 (금) | 제2부 · 에스더 (1장 = 1회, 전 10장 완독)

역대 일기에 기록된 사람, 백성을 위하여 평안을 말한 지도자 (에스더 10:1–3)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이후 · 도성 수산과 바사 제국 전역 | **등장인물:** 아하수에로 왕, 유다인 모르드개

• **길 안내:**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인 10장은 세 절의 짧은 에필로그로 마무리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와 바다 섬들에까지 조공을 부과하며 권세를 떨치고, 왕의 다음이 된 유다인 모르드개는 자기 백성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종족을 위하여 평안(샬롬)을 말하는 지도자로 기록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에스더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10장은 단 세 절로 이루어진 짧고도 묵직한 결말입니다. 아달월의 큰 위기와 부림절 잔치가 모두 지나간 뒤, 바사 제국은 다시 거대한 일상의 행정 체제로 돌아갔지요. 1절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뿐 아니라 지중해와 에게해 연안의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던 황제는 여전히 광활한 영토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제국의 금고를 채우는 일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아하수에로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그가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구체적인 시말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역대 일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고 묻습니다. 앞서 2장에서는 대궐 문지기 모르드개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아 내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궁중 일기책 한 구석에 조용히 적혀 있었고, 6장에서는 왕이 잠 못 이루던 밤에 그 일기책이 펼쳐지면서 역전의 새벽이 밝아 왔지요. 이제 10장에 이르러서는 모르드개가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제국의 총리로서 행한 모든 크고 존귀한 업적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공식 역사책인 역대 일기에 당당히 수록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마지막 3절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된 유다인 모르드개가 어떤 모습으로 그 높은 자리를 지켰는지를 증언하며 에스더서 전체의 문을 닫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아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유익을 부지런히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위하여 평안을 말하였기 때문이었지요. 대궐 문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던 한 사람이 제국의 이인자가 된 뒤에도 권력을 자랑하는 대신, 끝까지 백성의 선함과 평안을 구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도레쉬 토브 레암모 웨도베르 샬롬 (דֹּרֵשׁ טוֹב לְעַמּוֹ וְדֹבֵר שָׁלוֹם) — 3절 마지막 문장인 '자기 백성의 이익(선함, 토브)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위하여 평안(샬롬)을 말하였다' 입니다. 도레쉬는 부지런히 찾고 구한다는 뜻으로,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도 자기 영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토브)과 평강(샬롬)을 끊임없이 구한 청지기의 자세를 보여 줍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왜 에스더서는 9장의 통쾌한 부림절 승리로 끝나지 않고, 세금을 거두는 아하수에로 왕과 평안을 말하는 모르드개를 대조하는 10장 세 절을 굳이 덧붙였을까요? 세상의 왕(아하수에로)은 본토와 바다 섬들로부터 조공을 거두어들이는 사람(1절)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모르드개)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백성의 좋은 일을 구하고 평안을 나누어 주는 사람(3절)임을 마지막까지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방 제국의 한복판에서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왕의 다음 자리를 감당하며 형제들에게 샬롬의 그늘이 되어 준 모르드개의 뒷모습으로 에스더서 열 장의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 오늘의 질문: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고 맡겨 주신 자리에서, 나는 내 몫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샬롬)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 기도로 머물기: 역사의 모든 페이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유익보다 공동체의 선함을 구하며 세상에 주님의 평안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15회 | 2026-11-14 (토)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소리 나지 않는 입술을 먼저 보시는 실로의 하나님 (사무엘상 1:1 – 28)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 시대 말기 (주전 1100년경) ·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과 실로(Shiloh)의 여호와의 성막 | **등장인물:** 엘가나, 한나, 브닌나, 엘리 제사장, 어린 사무엘

• **길 안내:** 자식이 없어 브닌나의 격분시킴 속에 매년 실로 성막에서 눈물 흘리던 한나는,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를 취한 줄로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자, 한나는 근심 빛이 사라지고 사무엘을 낳아 주께 드립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엘가나는 브닌나와 그의 자녀에게 제물의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었으나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었지요.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켜 괴롭게 하므로, 한나는 해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울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위로했지만 한나의 아픔은 가시지 않았지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아뢰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녀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여 살펴보니, 속으로 말하여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엘리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꾸짖자 한나가 조용히 대답하지요.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놓은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제야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하지요.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집으로 돌아간 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고,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여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릅니다.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기도하던 이 아이를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나도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린다고 고백하며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지요.

【3. 한 단어에 머물기】

• 샤파크 네페쉬 (שָׁפַךְ נֶפֶשׁ · shaphakh nephesh) — 15절에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고 말할 때 쓰인 표현으로, 직역하면 '내 영혼(생명)을 물처럼 쏟아부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20절의 사무엘(שְׁמוּאֵל · Shemu'el)이라는 이름을 지으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고 한 고백은 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샤알(שָׁאַל · sha'al)과 연결된 어원적 말놀이로, 기도로 구하여 응답받은 생명임을 보여 줍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서 왕국의 새벽을 여는 사무엘상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실로 성막 문가에서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우는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조차 그 아픔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했고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소리 나지 않는 입술의 떨림을 가장 먼저 보시고 한나를 기억하셨지요. 아직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 선언을 믿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는 18절의 기록은, 기도의 응답이 먼저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옴을 보여 줍니다.

• 오늘의 질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 홀로 삼키고 있는 아픔을, 오늘 여호와 앞에 심정을 쏟아붓는 기도로 바꾸어 드릴 수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소리 없는 입술의 기도와 눈물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 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얼굴빛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제16회 | 2026-11-16 (월)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한나의 노래와 꺼져 가는 엘리 집안의 제단 (사무엘상 2:1 – 36)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 시대 말기 · 실로의 여호와의 성막 뜰 | **등장인물:** 한나,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장, 홉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사람

• **길 안내:** 어린 사무엘을 성막에 두고 돌아서며 한나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뒤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홉니와 비느하스의 타락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젖을 뗀 사무엘을 실로 성막에 드린 한나가 기도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이라 고백하지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 노래하지요.

찬양을 마친 뒤 엘가나와 한나는 라마로 돌아가고,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인 홉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갔지요.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이 와서 구워 드릴 날고기를 내놓으라 요구하고, 기름을 먼저 태운 뒤에 가져가라 하면 지금 내놓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겠다며 위압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지요.

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어머니가 해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 입혀 주었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지요.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에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꾸짖으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 무렵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요. 어찌하여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가볍게 여길 것이니, 네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요 내가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예고하십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카베드 (כָּבֵד · kaved) — 30절의 '존중히 여기다'에 쓰인 동사로 본래 '무겁게 여기다(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무겁게(중히, 29절)' 여겼지요. 또한 10절 마지막 단어인 마쉬아흐(מָשִׁיחַ · mashiach,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레위기에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가리켜 쓰였으나,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나의 노래에서 장차 세워질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께 바라보는 메시아적 전망으로 등장합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2장은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상반된 풍경을 교차하여 보여 줍니다. 한쪽에는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 제물을 가로채며 여호와의 제사를 가볍게(멸시) 여기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가 해마다 지어 온 작은 겉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어린 사무엘이 있지요(26절).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어머니의 기도로 심어진 작은 생명을 성막 안에서 조용히 키우시며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 오늘의 질문: 오늘 나의 예배와 일상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존중히) 모시고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익숙해진 신앙 속에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허물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17회 | 2026-11-17 (화)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사무엘상 3:1 – 21)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 시대 말기 · 새벽 미명 실로 성막의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소 근처 | **등장인물:** 소년 사무엘, 엘리 제사장

• **길 안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성소 안에 누운 사무엘을 네 번 부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고 응답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어르신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달려왔다고 아룁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고 돌려보내지요. 소년이 가서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어르신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왔다고 말하니, 엘리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또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어르신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왔다고 아뢰니, 그제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일러 주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다시 눕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자 사무엘은 주님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십시오 하고 조용히 아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라,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하셨지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불러 숨기지 말라고 명하자 사무엘이 모든 말을 자세히 고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었지요.

【3. 한 단어에 머물기】

• 네르 엘로힘 (נֵר אֱלֹהִים · ner Elohim) — 3절의 '하나님의 등불' 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 – 21절 규례에 따라 성소 안의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이 보살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지요. 새벽녘 기름이 다 타 들어가며 불빛이 가물거리는 시각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였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 시점을 상징합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3장 초반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시대의 영적 밤을 보여 주면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소망의 문장을 함께 적어 놓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깨우는 부름에도 불평 없이 세 번이나 늙은 엘리에게 달려간 사무엘의 성실한 순종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이어졌지요. 한 사람이 언약궤 곁에서 듣는 귀를 회복했을 때, 실로에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오늘의 질문: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기도를 멈추고, 주님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며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내게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세상이 어두워져도 당신의 등불을 결코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궤 곁에 머물며 주님의 부르심에 듣는 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18회 | 2026-11-18 (수)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전쟁터로 끌려 나온 언약궤와 이가봇의 눈물 (사무엘상 4:1 – 22)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 시대 말기 · 에벤에셀과 아벡 사이의 전장 및 실로 성문 곁 | **등장인물:** 이스라엘 장로들, 홉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

• **길 안내:**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사천 명이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오면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과 엘리가 죽으며,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고 이가봇이라 이름 짓습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그 무렵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여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패하여 들판에서 군사 사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지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자 땅이 울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알자 두려워하여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며 떨었으나, 이내 강건하여져서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자며 전열을 가다듬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맹렬히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삼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렀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두려워 떨며 길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구십팔 세가 되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던 엘리가 이 떠드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 사람이 달려와 아뢰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륙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푸려 해산하고, 죽어 갈 때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탄식하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르고 숨을 거두었지요.

【3. 한 단어에 머물기】

• 이카보드 (אִי־כָבוֹד · I-khavod) — 21절의 '이가봇'으로, 부정을 뜻하는 접두어 이(אִי)와 영광 · 무거움을 뜻하는 카보드(כָּבוֹד)가 합쳐져 '영광이 없다(영광이 어디 있는가)'라는 뜻을 이룹니다. 제물을 탐하여 몸이 비대해진(무거워진, 카베드, 18절)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함께 실로 시대의 영광이 떠났음을 슬퍼하는 이름입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첫 패배 직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던진 질문('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3절)은 정확했으나, 그들이 내린 처방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실로에서 언약궤 상자를 가져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그 거룩한 궤를 메고 온 제사장은 제사를 멸시하던 홉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삶의 순종과 거룩함은 버려둔 채 종교적 성물이나 의식을 부적처럼 이용하여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할 때, 하나님은 상자 안에 갇혀 이용당하시는 대신 차라리 포로가 되는 수치까지 감수하시며 불신앙을 심판하십니다.

• 오늘의 질문: 내 삶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미루어 둔 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와 예배를 '그것(수단)'처럼 이용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결코 사람의 욕망이나 형식 속에 갇히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빈껍데기 종교적 열심을 내려놓고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의 임재를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제19회 | 2026-11-19 (목)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다곤 신전 문지방에 끊어진 머리와 두 손목 (사무엘상 5:1 – 12)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 시대 말기 · 언약궤가 옮겨 간 블레셋의 세 도시 — 아스돗(Ashdod), 가드(Gath), 에그론(Ekron) | **등장인물:** 아스돗 사람들과 블레셋 방백들, 가드와 에그론 거민들

• **길 안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으나, 다곤 신상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집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궤를 옮길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여 큰 환난과 독종 재앙이 덮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두었지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살펴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놀라 다곤을 일으켜 다시 본래 있던 그 자리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다시 일찍 일어나 가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지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에게 가혹하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까 묻습니다. 방백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지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외칩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었지요.

【3. 한 단어에 머물기】

• 야드 아도나이 (יַד־יְהוָה · yad Adonai) — 6절, 7절, 9절, 11절에 거듭 반복되는 '여호와의 손(하나님의 손)' 입니다. 4절에서 다곤 신상의 두 손목(카포 요다이브)은 끊어져 문지방에 굴러다녔으나, 살아 계신 여호와의 손은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과 블레셋 성읍들을 홀로 제압하셨음을 대조적으로 보여 줍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 한구석에 두어 전리품이자 부하로 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가져다 놓으며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여겼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 한 명 없는 적진의 신전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조금도 빌리지 않으시고 친히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 항복을 받아 내십니다. 4장에서 이가봇(영광이 떠났다)이라 탄식했던 사람의 절망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손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심을 5장이 선명하게 증명합니다.

• 오늘의 질문: 내 마음의 신전 안에 하나님과 나란히 세워 두려 했던 세상의 '다곤 우상' 은 무엇입니까?

• 기도로 머물기: 사람의 도움 없이도 홀로 영광을 지키시며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헛된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제20회 | 2026-11-20 (금)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벧세메스로 걸어간 두 암소 (사무엘상 6:1–21)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 시대 말기 · 블레셋 평지에서 유다 국경 마을 벧세메스(Beth-shemesh)로 오르는 골짜기 길 | **등장인물:**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다섯 방백, 벧세메스 사람들과 여호수아, 기랏여아림 사람들

• **길 안내:** 일곱 달 동안 재앙을 견디지 못한 블레셋이 속건제물과 함께 새 수레에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젖 나는 암소 두 마리를 메워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송아지를 떼어 놓았음에도 암소들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벧세메스로 걸어 올라갑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 있은 지 일곱 달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본래 있던 곳으로 어떻게 보낼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묻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병도 낫고 그의 손을 거두실 것이라며, 블레셋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합니다. 옛적 애굽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재앙을 당한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과연 여호와의 손이 내리신 재앙인지 우연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제안합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지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 보물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보내어 보고,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벧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줄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자, 암소가 벧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벧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 보았지요. 그때 벧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더니, 수레가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섭니다.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 큰 돌 위에 두었지요.

그러나 벧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께서 백성 중 칠십 명을 치시자 백성이 크게 애통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하며 두려워한 벧세메스 사람들은, 기랏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여호와의 궤를 너희에게로 내려가게 하라고 청하였지요.

【3. 한 단어에 머물기】

• 야샤르 (יָשַׁר · yashar) — 12절에서 암소가 벧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할 때 쓰인 동사로 '곧게 나아가다, 바르게 직진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았고 젖 먹던 송아지를 뒤에 떼어 두고 왔음에도, 본성을 거슬러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명의 대로를 걸어간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냅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블레셋 복술자들은 혹시라도 이 재앙이 우연(미크레, 9절)이기를 바라며 어미 소의 모성 본능을 이용한 가장 어려운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두 마리 암소는 뒤에 남은 송아지 때문에 울면서도 좌우로 한 치도 치우치지 않고 오르막길인 벧세메스로 곧장 걸어 올라갔지요. 한편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도 호기심에 궤를 함부로 들여다보았다가 징계를 받은 벧세메스 사람들의 모습(19절)은, 이방인인 블레셋조차 두려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작 언약 백성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됨을 일깨웁니다.

• 오늘의 질문: 뒤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인정과 미련 때문에 눈물이 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대로를 곧장 걸어가고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온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의 길을 좌우로 치우침 없이 걷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21회 | 2026-11-21 (토)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미스바에 길어 부은 물과 에벤에셀의 돌 (사무엘상 7:1 – 17)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 시대 말기 · 기랏여아림 아비나답의 집과 미스바(Mizpah) 산지, 미스바와 센 사이 | **등장인물:** 기랏여아림 사람들(아비나답과 엘리아살), 사무엘, 이스라엘 온 족속, 블레셋 방백들

• **길 안내:** 기랏여아림에 언약궤가 머문 지 이십 년이 지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자, 사무엘은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 금식하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게 합니다. 그때 쳐들어온 블레셋을 여호와께서 큰 우레로 물리치시고, 사무엘은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 부릅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머물자, 마침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지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 일깨웁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지요. 사무엘이 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선포하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달라고 간청하지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오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말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벧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무찔렀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므로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되고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에벤 하에제르 (אֶבֶן הָעֵזֶר · Even ha-Ezer) — 12절의 '에벤에셀(도움의 돌)'입니다. 6절에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샤파크 마임, שָׁפַךְ מַיִם)' 자기들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는 참회를 거쳤을 때, 과거 4장 1절에서 패배의 아픔이 서려 있던 지명인 에벤에셀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은혜의 이름으로 새롭게 선포되었습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7장의 미스바 성회는 4장의 전투와 정반대의 걸음을 보여 줍니다. 4장에서는 우상을 그대로 둔 채 언약궤 상자만 앞세우고 함성을 질렀으나 참패했지요. 반면 7장에서는 이십 년 동안 말씀을 사모하며 먼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쏟으며 종일 금식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와 기도로 매달렸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큰 우레로 싸우셔서 과거 패전의 기억이 담긴 에벤에셀(4:1)이라는 이름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도움의 돌 에벤에셀(7:12)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 오늘의 질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내 삶에서 먼저 제거해야 할 '바알과 아스다롯'은 무엇입니까?

• 기도로 머물기: 전심으로 돌아와 쏟아 놓는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실패와 두려움의 기억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제22회 | 2026-11-23 (월)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는 요구 (사무엘상 8:1 – 22)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무엘의 노년기 (주전 1050년경) · 브엘세바와 사무엘의 고향 라마(Ramah) | **등장인물:** 사무엘, 요엘과 아비야(사무엘의 두 아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 **길 안내:**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로 찾아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인간 왕의 제도가 가져올 무거운 짐을 경고하십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사무엘이 늙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으나,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지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와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명하시지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주며,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어떠할 것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왕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너희 양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갈 것이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겠으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일깨우지요.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고집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말하였지요.

【3. 한 단어에 머물기】

• 케콜 하고임 (כְּכָל־הַגּוֹיִם · kekhol ha-goyim) — 5절과 20절에서 백성들이 반복한 '모든 나라(이방 열방)와 같이' 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세상 열방과 구별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방 열방과 똑같아지기를 원하며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군사 지도자를 요구했음을 보여 줍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신명기 17장에도 이미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을 세울 때의 규례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8장의 문제는 왕이라는 제도 자체라기보다, 백성들이 왕을 구한 동기에 있었지요. 바로 앞 장(7장) 미스바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큰 우레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음에도, 백성들은 매번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신앙의 걸음 대신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앞에 나가 싸울 왕' (20절)을 달라고 고집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의 자녀와 재산을 취하여 (라카흐 — 11~17절에 여섯 번 반복) 자기 병거 앞을 달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집스러운 백성의 요구조차 허락하시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정의 새 국면을 열어 가십니다.

• 오늘의 질문: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모든 나라와 같이)' 라는 말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조건을 내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친히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 세상과 똑같아지려 했던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왕좌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제23회 | 2026-11-24 (화)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만난 선견자의 식탁 (사무엘상 9:1 – 27)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의 전환기 ·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숩(Zuph) 땅의 성읍 | **등장인물:** 기스, 사울(베냐민 지파 청년), 사환, 물 길으러 나온 소녀들, 사무엘

• **길 안내:** 어깨 위로는 남보다 더 큰 준수한 청년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숩 땅의 성읍에서 선견자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이미 사무엘의 귀에 알게 하셨고, 사무엘은 사울을 청하여 남겨 둔 제물 넓적다리를 대접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사울이라는 젊고 준수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지요.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사울에게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땅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숩 땅에 이르렀을 때에는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우니 돌아가자고 말하지요.

그러자 사환이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면 우리가 갈 길을 일러 줄지도 모르겠다고 제안합니다. 사울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걱정하자, 사환이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물어보자고 하지요. 옛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오늘날의 선지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불렀습니다.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으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고 묻자, 소녀들이 오늘 산당에서 백성의 제사가 있으니 지금 올라가면 만날 것이라 알려 줍니다. 그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편에서 나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의 귀에 알게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하셨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이가 바로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라 알려 주시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아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묻자, 사무엘은 내가 선견자이니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자, 오늘 나와 함께 먹고 아침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일러 주겠다 하며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사흘 전에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하자 사울은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요 내 가족은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하며 대답했지요. 사무엘이 사울과 사환을 객실 상석에 앉히고 미리 남겨 두었던 제물의 넓적다리를 대접한 뒤, 이튿날 새벽 성읍 끝으로 내려가면서 사환을 앞서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 멈추어 섭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갈라 오젠 (גָּלָה אׇזֶן · galah ozen) — 15절의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에 알게 하여'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열어(덮개를 걷어 올리고) 알려 주셨다'라는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또한 16절의 나기드(נָגִיד · nagid, 지도자 · 영도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위에 왕으로 세우도록 지명하신 자를 가리키는 말로, 8장에서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요구한 허물과 9 – 10장에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돌보사 지도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사이의 긴장을 함께 보여 줍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사울의 눈에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느라 사흘 동안 산지를 헤맨 답답한 걸음이었지만, 15 – 16절은 사울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만남을 예고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8장에서 백성들은 자기 욕심으로 왕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블레셋 압제 아래 신음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돌보셨지요(16절).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는 작고 성가신 문제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릴 때 사명의 식탁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 오늘의 질문: 내 눈에는 '잃어버린 암나귀'처럼 답답해 보이는 일상의 문제가, 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과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섭리의 걸음일 수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우리가 도착하기 하루 전에 이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일상의 작은 걸음 속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맡겨 주신 자리에서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제24회 | 2026-11-25 (수)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부어진 기름병과 미스바 짐짝 사이에 숨은 사람 (사무엘상 10:1 – 27)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울 왕 즉위기 · 숩 땅 성읍 끝과 하나님의 산(기브아), 미스바 총회 | **등장인물:** 사무엘, 사울, 선지자의 무리, 사울의 숙부, 미스바에 모인 온 이스라엘

• **길 안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병을 가져다 붓고 여호와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운 뒤 세 가지 징조를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마음을 받은 사울은 미스바 제비 뽑기에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가 나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포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부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오늘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겪게 될 세 가지 징조를 상세히 일러 주지요. 첫째는 베냐민 경계 셀사의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요, 둘째는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벧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염소 새끼와 떡 세 덩이와 포도주 가죽부대를 가지고 가다가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며, 셋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네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 알려 줍니다. 또한 길갈로 내려가 이레 동안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자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며 놀라워합니다.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을 때 숙부가 어디로 갔더냐고 묻자, 사울은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에게 갔던 일만 말하고 왕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지요.

그 후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오늘 너희가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였으니 지파대로 천 명씩 나아오라 명합니다.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찾아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그 사람이 여기 왔는지 여쭈자 여호와께서는 그가 행구(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고 알려 주십니다. 달려가서 데려오자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지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고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으며, 사울은 자기를 멸시하는 불량배들이 있었으나 잠잠하고 기브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레브 아헤르 (לֵב אַחֵר · lev acher) — 9절에서 사울이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다른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나섰던 청년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큰 키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10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세 장면으로 기록합니다. 사무엘에게서 은밀히 기름부음을 받은 뒤 집안의 숙부에게도 왕의 일을 말하지 않았고(16절), 온 민족이 모인 미스바 제비 뽑기 자리에서는 행구(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여호와의 지목으로 백성 앞에 섰으며(22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는 불량배들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잠잠히 참았지요(27절).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시작된 이 첫걸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 오늘의 질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주셨던 '새 마음'과, 비난 앞에서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오늘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연약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칭찬이나 멸시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제25회 | 2026-11-26 (목)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길르앗 야베스의 눈물과 길갈에서 새롭게 한 나라 (사무엘상 11:1 – 15)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울 왕 초기 ·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Jabesh-gilead) 성읍과 기브아, 베섹, 길갈 | **등장인물:** 암몬 사람 나하스,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 사울, 사무엘

• **길 안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에워싸고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모욕하자,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사울은 삼십삼만 군사를 모아 암몬을 격파하고, 반대자들까지 용서한 뒤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자,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고 청합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하며 잔인한 조건을 내걸지요.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선포하지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었지요.

무리들이 와 있는 전령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하게 하자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대열로 나누어 새벽 파수 때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자, 남은 자들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습니다.

승리 직후 백성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던 자가 누구냐며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자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하며 만류하지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권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네하데쉬 하믈루카 (נְחַדֵּשׁ הַמְּלוּכָה · nechaddesh ha-melukhah) — 14절에서 사무엘이 선포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입니다. 하믈루카(왕정 · 통치)를 새롭게(하다쉬) 한다는 것은 단순한 즉위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셨음을 고백하며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예배였습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고대 전투에서 병사들은 왼손에 방패를 들어 왼쪽 얼굴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적을 보며 싸웠기에, 오른눈을 뺀다는 것은 영원히 싸울 수 없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모욕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 위협 앞에서 울기만 할 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6절) 삼십삼만 명이 한 사람처럼 일어섭니다. 특히 대승을 거둔 뒤 자신을 멸시했던 반대파들을 처형하자는 요구 앞에서, 오늘 구원을 베푸신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시라며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반대자들까지 살려 준(13절) 사울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지도자의 빛나는 순간을 보여 줍니다.

• 오늘의 질문: 일이 잘 풀리고 승리했을 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보복하기보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며 넉넉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성령의 감동으로 연약한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승리의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며 용서와 화목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26회 | 2026-11-27 (금)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사무엘상 12:1 – 25)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울 왕 즉위 직후 · 밀 베는 시기(5~6월 건기) 길갈 성소 | **등장인물:** 사무엘, 사울 왕, 온 이스라엘 백성

• **길 안내:** 길갈에서 왕정을 새롭게 하며 노년의 사사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백성 앞에서 사욕을 취하지 않았음을 증언받은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고 있다 하지요.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으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요청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겠다고 말합니다. 백성이 한목소리로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고 증언하지요.

그러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역사를 차근차근 되짚어 줍니다. 조상들이 여호와를 잊었을 때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의 손에 넘기셨으나, 부르짖을 때마다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안전하게 살게 하셨는데도, 너희가 암몬 왕 나하스가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이 여기 있으니 너희와 너희의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좋겠거니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경고하지요.

이어서 사무엘은 왕을 구한 악이 여호와의 목전에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겠다며, 밀 베는 시기인 오늘 여호와께 아뢰어 우레와 비를 보내게 하리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밀 추수기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였으나,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 달라며,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고 떨며 호소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위로하지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당부하였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하토후 아쉐르 로 요일루 (הַתֹּהוּ אֲשֶׁר לֹא־יוֹעִילוּ · ha-tohu asher lo yo'ilu) — 21절에서 우상을 가리켜 부른 '유익하게도 못하는 헛된 것(공허한 것)' 입니다. 토후는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 에 쓰인 단어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는 모든 우상은 결국 사람을 텅 빈 공허함으로 이끌 뿐임을 일깨웁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지어 준 작은 겉옷을 입고 실로 성막에 들어왔던 사무엘이, 이제 백발이 된 노인이 되어 온 백성 앞에서 누구의 소나 나귀도 빼앗은 적이 없는 깨끗한 삶을 증언받습니다(1 – 5절). 특히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 떨 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안심시키며, 사사의 행정 직무는 내려놓아도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죽는 날까지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요(22 – 23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 로 여긴 사무엘의 중심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 오늘의 질문: 내게 맡겨 주신 가족과 공동체,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 를 범하지 않고 오늘 다시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기도로 머물기: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맡겨 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제27회 | 2026-11-28 (토)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이레째 날 길갈에서 조급히 드린 번제와 흔들리는 왕위 (사무엘상 13:1 – 23)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울 왕 통치 초반 · 베냐민 산지 믹마스(Michmash)와 길갈 | **등장인물:** 사울 왕, 요나단(사울의 아들), 사무엘, 블레셋 대군

• **길 안내:** 요나단이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이 병거 삼만과 해변의 모래 같은 군대로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이 흩어지고 약속한 이레째 날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조급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이로 인해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 이스라엘 사람 삼천 명을 택하여, 이천 명은 자기가 거느리고 믹마스와 벧엘 산에 있게 하고 일천 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었지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리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따라 길갈로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올라와 벧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지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고 백성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명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지요.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자 사무엘이 네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사울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와 나를 치려 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생각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지요. 만일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일러 준 뒤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갔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육백 명가량이었으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백성 중에 칼이나 창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이쉬 킬바보 (אִישׁ כִּלְבָבוֹ · ish kilvavo) — 14절의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그의 마음과 같은 사람)' 입니다. 12절에서 사울이 '부득이하여(이타파크, אֶתְאַפַּק — 억지로 참고 결행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한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눈앞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한을 끝까지 존중하는 중심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일찍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길갈로 내려가 이레 동안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행할 바를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했었습니다(10:8). 사울은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13:8), 그 일곱째 날 사무엘이 도착하기 직전의 마지막 시간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번제를 드렸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지요(10절). 사울의 변명 속에는 '흩어지는 백성, 늦어지는 선지자, 몰려오는 블레셋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득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순종은 빠져 있었습니다.

• 오늘의 질문: 약속된 기한의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해 내 손으로 급히 일을 처리해 버리려는 조급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과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과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28회 | 2026-11-30 (월) | 제3부 · 사무엘상 전반부 (1장 = 1회, 1~14장)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 여호와의 구원 (사무엘상 14:1 – 52)

【1. 오늘 걷는 길】

• **시대와 장소:** 사울 왕 통치 초반 · 베냐민 산지 기브아 변두리 석류나무 아래와 믹마스 바위 협곡(보세스와 세네) | **등장인물:** 요나단, 무기를 든 소년, 사울 왕, 아히야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 **길 안내:** 사울이 기브아 석류나무 아래에 육백 명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 단 한 사람과 함께 믹마스 벼랑을 기어올라 블레셋 부대를 급습합니다. 큰 승리가 일어나는 중에 사울은 자기 원수를 갚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는 무리한 맹세로 백성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2. 꿈바온 풀어읽기】 (원문을 바탕으로 꿈바온이 풀어쓴 독립 해설문)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육백 명가량이었으며,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자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나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지요. 요나단이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모른다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지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고 화답합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우리가 올라갈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말하지요.

두 사람이 블레셋 부대에게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며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조롱합니다.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하며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무기를 든 자도 뒤따르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갈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서 죽인 자가 이십 명가량이었습니다. 이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 중에 공포가 일어나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떨림이었지요.

베냐민 기브아의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허다한 블레셋 군대가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이르러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를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지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으므로 백성이 다 피곤하였지요. 이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이 숲에서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어 눈이 밝아졌다가 제비 뽑기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나, 백성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며 요나단을 구원하여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3. 한 단어에 머물기】

• 마아초르 (מַעְצוֹר · ma'tzor) —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할 때 쓰인 명사로 '장애물, 가로막음, 제한'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께는 많음으로 구원하시든 적음으로 구원하시든 아무런 거침(제한)이 없다'는 뜻이지요. 또한 7절에서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할 때 쓰인 킬바브카(כִּלְבָבֶךָ · kilvavekha)는 13장 14절의 '그의 마음에 맞는(킬바보)'과 같은 형태입니다.

【4. 들고 나가는 말씀】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기준)

11월호의 마지막 스물여덟 번째 장인 사무엘상 14장은 두 사람의 대조적인 걸음을 보여 줍니다.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에 육백 명가량의 군사와 에봇 입은 제사장과 함께 머물러 있었고(2절), 전투가 시작된 뒤에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금식을 강요하는 무리한 맹세로 백성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24절). 반면 요나단은 결과의 주권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되(6절),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라는 제한이 없음을 믿고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험한 바위 협곡을 기어 올라갔지요. 이어지는 12월호에서는 사무엘상 15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의 아말렉 전투와 다윗의 기름부음(하라프 חָרַף —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과 맞선 엘라 골짜기)이 하루에 한 장씩 펼쳐집니다.

• 오늘의 질문: 가진 자원과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멈추어 서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음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 기도로 머물기: 구원을 베푸시는 데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환경의 한계에 매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아멘.